

중소·벤처 창업활성화 지원

정부는 서민·중산층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76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추가로 조성, 창업 및 경제활동 활성화에 투입키로 했다.

산업자원부(장관 윤진식)와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지난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사회 관계 장관 회의에서 기금과 추경예산을 통해 모두 7590억원을 추가로 확보, 하반기에 서민·중산층의 창업 및 경제활동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소·벤처 창업자금 2700억원을 집행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500억원의 추가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에 창업대학원을 시범운영하고 내년에 대학원을 설립해 창업 전문가를 본격 양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8월에 '창업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기존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재점검하고,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창업지원자금을 당초 2500억원에서 1000억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사업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도 1조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2500억원 늘렸다.

특히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보에 추경 2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영세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어음은 물론 매출채권도 보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벤처기업 해외지원센터 24개 지정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24개 해외지원센터를 지정, 오는 7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별 해외지원센터는 중국에 호서대학교 등 7개, 미국에 이커뮤니티 등 5개, 유럽에 코리아비즈니스서비스 등 5개, 일본·싱가포르 등 기타지역에 인터프로코리아 등 7개 센터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해외지원센터는 대기업 해외지사 및 교포 컨설팅사 등 해외 현지에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고 수출지원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들이다. 이들은 향후 3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정보 제공 및 파트너 알선, 현지법인, 마케팅 대행 등 해외 진출에 따른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중기청은 해외 진출 성공 가능성이 큰 120여개 기업을 선정해 오는 7월부터 우선적으로 해외지원센터와 연계시켜 지원할 방침이다.

호서대·진주산업대, 벤처창업 전문과정 운영대학 선정

벤처창업전문과정(EIP)운영대학으로 호서대와 진주산업대가 각각 선정됐다.

중소기업청은 기업이 정신 함양과 창업마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용할 EIP운영대학으로 이들 2개 대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2개 대학은 중기청과 각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동안 창업교육과정을 토론과 사례분석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중기청은 내년부터 2년 과정의 창업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창업 교육과정 개발과 설립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벤처 M&A 연내 비과세”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 또는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종합대책이 연내에 수립된다.

또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가 각각 내놓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사업’과 ‘포스트 반도체-초일류 기술 국가 프로젝트’ IT신성장산업 발굴사업 등 기획안은 오는 7월 청와대의 조율을 거쳐 단일안으로 도출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윤진식 장관은 “벤처기업 M&A 활성화는 벤처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재정경제부에서도 벤처기업 M&A 시비과세 방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올해 안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세법을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업계동향 ☞



〈IT〉 1분기 IT, 수출 123억달러...37억弗 흑자

지난 1분기 IT 산업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1% 성장한 123억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03년 1/4분기 IT산업 수출입 동향’ 자료를 통해 국제금융 불안과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구조, 아시아 지역 중증급성호흡기후군(SARS)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우리나라 IT산업 수출이 크게 성장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우리나라 IT 수출은 123억달러, IT 수입은 85억9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로는 37억1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TRI는 1분기 IT 수출과 무역수지 모두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고 품목별로는 이동전화 단말기 중심의 통신기와 반도체 중심의 IT 부품 부문이 수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ETRI 경제분석연구팀 정해식 연구원은 “현재 미국의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고, 미국의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반기 이후 세계 IT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며 “포스트 PC, 디지털 TV 및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들의 수출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IT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출지역 및 품목다변화와 수출경쟁력 향상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IT경기가 회복됐을 때 세계 1등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T〉 나노정보시스템 구축 170억 투입

과학기술부는 나노(10억분의 1m)기술 선진강국 진입을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9년 동안 170억원을 투입, 정보기반과 정보협력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나노기술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총괄하게 된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우선 1단계로 2005년까지 국내외 나노기술 정보의 현황을 분석하고 수요를 예측, 정보교류 및 협력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어 2단계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나노기술 정보 산업기술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기관을 통합 연계한 나노기술(NT)정보교류 협력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3단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나노기술 로드맵과 특허맵 등을 작성하고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및 정보분석 시스템 등을 통한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의 글로벌화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나노기술분야 선진국 진입을 위해 2010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기술동향 ☞



천연물질 ‘레반’ 대량생산기술 개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상기 박사팀은 과학기술부 생명공학실용화 사업의 하나로 설당에 들어있는 다당류의 일종인 ‘레반’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레반은 설당 성분 가운데 과당(果糖)만 300만개 정도를 결합해 놓은 천연물질로, 유산균 생육촉진과 유해 미생물의 생육 억제, 면역증강력 등이 뛰어나 의약품, 화장품, 사료 등 생물산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미생물 ‘자이모모나스(Zymomonas)’를 이용한 것으로, 이 미생물을 통해 생합성효소(레반슈크라제)를 만든 뒤 설당액에 넣어 반응을 시키면 다량의 레반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바이오벤처기업인 리얼바이오텍에 이전, 기능성 식품소재와 빈혈, 골다공증 치료제 등으로 제품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재 인도와 브라질에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기 박사는 “레반은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 사료첨가제와 혈장 대용제, 백신 안정제, 화장품 소재 등으로 개발 가능하다”며 “제품이 본격 출시되면 연간 200억원 규모의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